

기획시리즈(1) - 소련사태 후 국제질서 변화(上)

서방주도권 계속될 세계체제

I. 머리말

보수파세력이 주도한 쿠데타가 실패한 뒤 소련공산당이 해체위기를 맞고 소련방체제가 구심점을 잃어 표류하는 지경에 이른 소련은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소련식 사회주의모델이 1세기 가까운 실험을 통해 자본주의체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소련국민들이 깨닫게 된 것이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련식 사회주의의 문제점은 전체사회가 국가중심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가가 국가가 엄청나게 비대화되고 그만큼 관료주의화되면서 비롯된다. 그 결과 형식에 치우치는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또 낮은 수준을 향한 평등화경향으로 노동의 동기가 감소해 사회전분야가 무력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가보안위원회(KGB)등의 억압기구가 사회질서 유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포감이 대규모 사회변혁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가택수색을 하고 체포·구금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까지 체크할 만큼 체제유지를 명목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해온 국가권력에 대한 반감은 소련뿐 아니라 모든 동유럽국가들의 민주화개혁의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소련에서의 쿠데타실패는 소련 보수파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켜 개혁물결을 더욱 거세게 흐르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이 서방국가들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는 신세계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명확한 전망을 제시하기엔 시기가 이르다. 그러나 쿠데타와 그후 소련의 변화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반응을 검토해 보면 그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날 것이다.

II. 소련쿠데타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8월18일 오후 크리미아반도의 대통령별장에서 휴가중이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은 KGB 간부를 비롯한 보수파인사들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고 이들로부터 현장의 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 그 내용은 "건장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대통령직을 겸한다" 아니라고 부통령에게 인계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이미 사실상의 쿠데타가 시작된 것이고 얼마후 고르바초프

의 실각소식이 전세계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다음날 발렌틴 파블로프 소련 총리등 강경보수와 8명으로 구성된 비상사태위원회가 모든 국가 권력을 인수했고 소련 일부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또한 드미트리 예조프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된 쿠데타군 장갑차 및 탱크 수십대가 모스크바 시내에 진입해 언론기관들을 포위했고 크렘린앞 붉은광장에도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시작했다.

고르바초프의 실각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오히려 피신해 있던 러시아공화국의 사당 주변에 몰려들어 버스나 트럭으로 바리케이트를 만들었다.

당시 케네디포트에서 휴가를 즐기던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20일 긴급국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소련의 대통령출출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쿠데타지도부에게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의 강경대응방안이 밝혀지자 임장표명을 주저하던 다른 서방국가들도 쿠데타지도부에 대한 비난에 나섰다. 유럽공동체(EC)와 일본은 대소 경제·기술지원의 중단을 발표했다.

한편 소련의 개혁지지 성향의 언론기관장사자들은 반정부투쟁을 벌이면서 팩시밀리, 복사기, 컴퓨터등을 이용해 지하신문을 제작했고 모스크바시내 각 지하철역 구내에 쿠데타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

20일 오후 러시아공화국의사당 앞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반쿠데타시위를 벌였다. 21일 새벽 이곳에서 장갑차 10여대와 시위군중이 충돌해 시민 3명이 숨졌다. 이날 오전 쿠데타지도부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오후들어 모스크바에 배치돼 있던 연방군에 철수명령이 전달됐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연금된지 72시간만에 대통령직을 되찾았다.

III. 서방자본주의국가들의 반응

소련의 쿠데타실패이후 공산당의 와해등 사태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소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다. 쿠데타기도를 막아내고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는 소련정세의 흐름은 모두 소련국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소련사태에 직접 개입할 명분도 계기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소련에서의 사태

전개는 미국이 바라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미국은 굳이 개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부시대통령은 소련쿠데타 발발 4일전인 8월14일 발표된 91년도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가치 및 이상과 일치하는 국제체제를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과거 어느 세대도 가져보지 못했던 특별한 가능성이다."

절프전을 통해 미국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 뒤 갖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냉전시대의 종말이후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진공지역에 새로운 종류의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대소정책의 기조는 지난 9월4일 제임스 베이커 미국국무장관이 발표한 미국의 대소정책 5원칙으로 정리됐다. 다섯가지

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소련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소련국민이며 평화적인 변혁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②연 국경을 존중한다.

③민주주의와 합법성을 지지한다.

④인권은 존중해야 하며 소수파에게도 일정한 배려를 해야 한다.

⑤국제법은 물론 과거에 체결된 조약과 국제적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소련의 정치지도자들과 일반국민들에게 미국

의 존중하는 가치를 공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소 양국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들중에는 쿠데타의 소용돌이 속에서 떠올랐던 전략핵무기의 안전관리문제가 있다. 소련은 핵탄두만 2만7천여개를 갖고 있으며 이 핵탄두를 미국등 타대륙에 실어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1천3백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소련의 전략핵무기들은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공화국들에 분산배치돼 있다.

이 전략핵무기문제는 소련 각 공화국들의 주권확립을직접으로 인해, 9년이상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합의본 전략 무기감축협정(START)에 새로운 난제를 던져주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과제가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방국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현재 미국의 대소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식량원조등 인도적 차원에 국한돼 있다. 부시대통령은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직후 소련에 농산물구입을 신용보증 3억1천5백만달러를 즉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 착황이 나쁜 을

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서방국가들의 입장에서 볼때 소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대소경제지원을 비롯해 소련과 협상을 벌일 기회가 많은 서방국가들은 누구를 협상파트너로 삼아야할지에 대해 당혹해 하고 있다. 앞으로 소련의 기존연방체제가 붕괴되고 각 공화국들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려드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쿠데타를 좌절시킨 주역으로 꼽히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이 현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서방언론들로부터 허풍쟁이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특히 미국정부는 옐친이 소련 최대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의 민선대통령에 당선된 뒤로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이나 그가 미국의 의도대로 고분고분하게 따라줄 인물이라고 여기진 않는 것 같다. 한편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서방국가들로부터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합리적인 이론가 스타일이며 서서 거래를 할수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은

글쓴이는 순서

1. 소련사태후 국제질서의 변화(上)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2. 소련 사태후 국제 질서의 변화(下)
-중국·북한을 중심으로
3. 국제질서 변화와 제3세계
4. 한국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변화
5. 한국의 무역 및 국내의 경제 전망
6.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대응

을 공동승인했다. EC의무장관회담에서는 또한 동유럽선진국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를 조속히 준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 불가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에 대한 경제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동유럽국가들의 민주화노력을 지원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는 EC회원국들은 소련쿠데타를 좌절시킨 국민운동의 추진력이 서유럽체제에 접근하려는 소련국민의 의지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EC의 발트3국 공동승인을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 민주주의를 기초로한 범유럽통합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련은 쿠데타이후 서방

을 통해 전세계를 '해방'시키려던 초강대국으로서의 '소련제국'이 사라진 결과라는 것이다. 소련의 한 보수파언론인은 "우리는 전세계에 대해 소련의 이상을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그 이상 자체도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들어 쿠바나 아프가니스탄에 경제지원을 하려 해도 소련방대 어떤 공화국들도 자금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외정책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련은 일본과 지난 30년간 논쟁을 벌여온 북방4개도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소련에 유입되는 데 장애물이 돼온만큼 소련으로서서는 해결이 시급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북방4개도서를 일본이 사들이는 식으로 해결된다면 소련의 각 공화국독립운동적임에 따라 장차 변화될 세계지도는 또 한차례 더 바뀌어야 할 것 같다.

IV. 결론

서유럽의 지식인들은 '소련제국'이 사라짐에 따라 국제정치흐름이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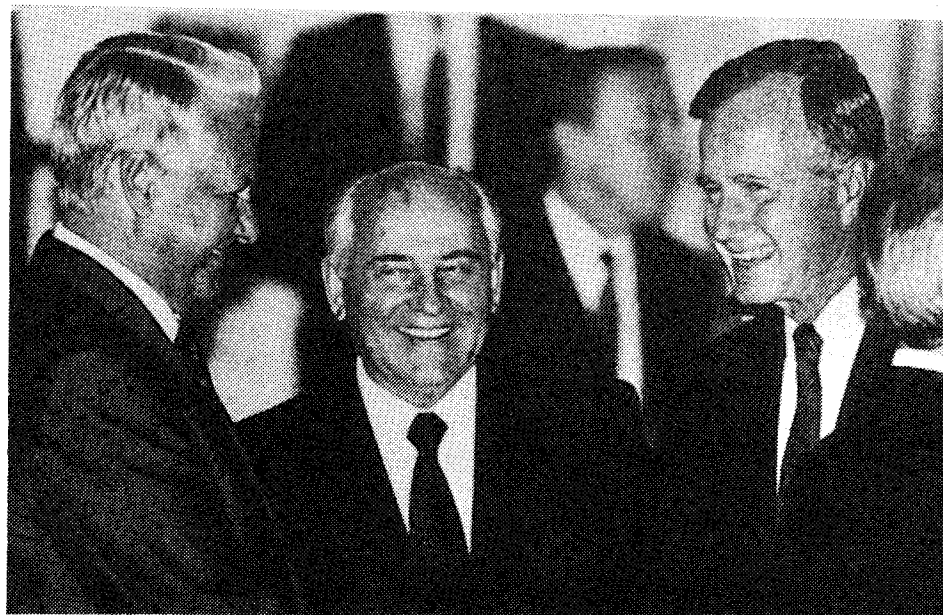
자본주의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서방세계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기위한 교육지력으로 사회개혁을 꾸준히 시행해 왔는데 이는 공산주의종주국 소련의 존재에 자극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이제 서유럽국가들에 대한 개혁지각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서방자본주의체제는 견제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한정 도덕적 무관심 속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방국가들및 소련의 대외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본바에 따르면 소련이 서방국가들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정세 변화는 소련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어떤 방식으로 정착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절프전에서 증명된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 미국의 국제정치 발언권은 최근 소련사태를 계기로 더욱 강화될 것은 확실하다. 즉 미국주도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박 완 규
(서울일보 국제부 기자)

변화와 적응의 소용돌이... 국제무대

본 기획시리즈는 소련사태를 기점으로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국제시대를 사는 현 상황의 객관적 인식과 대응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註>



△현재 미국의 대소정책을 살펴보면 식량원조등 인도적 차원에 국한돼 있다.

蘇, 쿠데타 후 국제지위 약화... 자본주의 국가 영향력 커져 EC의 발트3국 공동승인, 범유럽 통합 계기 삼을 듯

대의 핵심적 과제는 지역균형유지라고 지적한다. 2차세계대전 이래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몰두했던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이제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세계 경찰역할로 전환된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던 8월2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련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며 만족을 표실했다.

서방외교관들은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미국은 소련이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주요국가중 하나 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소련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소련국민이며 평화적인 변혁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②연 국경을 존중한다.

③민주주의와 합법성을 지지한다.

④인권은 존중해야 하며 소수파에게도 일정한 배려를 해야 한다.

⑤국제법은 물론 과거에 체결된 조약과 국제적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소련의 정치지도자들과 일반국민들에게 미국

해에 소련은 한발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커 곡물부족사태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몰도비아공화국등의 국창지역이 소련방으로 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있고 기존의 곡물분배체제와 교통수단이 거의 마비돼 있어 모스크바의 식량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오는 겨울철 소련대도시에 식량공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식량위기시에 곡물 또는 곡물구입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소련을 압도하려

그가 실권을 장악하는 연방대통령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미 상당부분 진척된 군축협상을 계속 진행시키고 이미 체결된 군축관련 협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있다. 그리고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들은 소련의 쿠데타실패를 계기로 정치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유럽의 세력서 구축에 보무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책 임감을 느끼고 있는 EC는 지난 8월말 브뤼셀에서 열린 EC의무장관회담에서 蘇연방 탈퇴유지임을 보이고 있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등 발트3국의 독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보여야할 입장에 있다. 소련은 국내적으로 발트3국이 독립해 나간뒤 러시아공화국등 다른 12개공화국이 자치권을 더 확보하는 선에서 새로운 연방체제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소련전문가들은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소련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증거라기, 보다는 어떤 형태의 대외정책이건 강력히 밀어부칠수 있는 중앙권력기구가 지난 1개월간 붕괴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즉 공산주의혁명

바로 지금입니다. 좋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랑, 학문, 사상, 방향에 이르기까지
바로 지금 뜨겁게 빠져들어야 할 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대학시절은 단 한번밖에 없는, 황금과도 같은 4년간의 휴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4년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써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흔히 젊은 지성을 일컬어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식어버린 가슴과 텅 빈 머리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죽이고 있지나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꿈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꼬박 새워도 좋습니다. 잔디밭에 하루종일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술잔을 들뜨고 누군가와 토론에 몰두해도 좋습니다. 바로 지금, 삶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당신의 뜨거운 정열을 보태보십시오. 소멸하여서는 안됩니다. 「보통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재능있는 인간은 시간을 이용하는데 마음을 쓴다.」

작은 꿈도 소중히 하는
국민은행



即時現今
更無時節
-臨濟禪師